

이승엽 '강진 베이스볼파크' 방문

오늘·내일 개인훈련 및 팬과의 만남 시간

'국민타자'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이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진베이스볼파크를 방문한다.

이승엽의 강진방문은 부친 이춘광(67) 씨의 고향인 강진에 조성된 강진베이스볼파크(대표 우수창)를 둘러보기 위한 것.

강진베이스볼파크는 이춘광씨가 직접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강진군 도암면에 조성되었으며, 이승엽도 평소 강진베이스볼파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은 20일 오후 강진을 방문해 숙박을 한 후 다음날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트레이너와 함께 오전에 개인훈련 등을 하게 되며, 오후에는 야구동호인 및 팬과의 만남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현재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는 지난 11

일부터 부산 동의대·충북 청원고·부산 꾸러기 리틀야구단 등 3개 야구팀 120여 명이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일부터는 인천 제물포고 야구팀 등이 전지훈련을 하게 된다.

한편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163.952㎡ 부지에 들어선 강진베이스볼파크는 1단계 사업으로 정규구장 4개면(총길이 120m, 좌우 96m)과 실내연습장 시설(길이 70m, 폭 40m)을 마련하고 유영구 한국야구 위원회 총재를 비롯한 야구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7월 개장식을 가진바 있다.

또한 16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숙소와 식당이 완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전국의 청소년 등을 위한 야구캠프와 아카데미도 개설 운영하게 된다.

말까지 호텔, 실외수영장, 팬션 등을 두루 갖춘 전천후 야구종합 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말까지 호텔, 실외수영장, 팬션 등을 두루 갖춘 전천후 야구종합 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류군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강진캠프 참가명단

▲코칭 스태프(7명) : 김대진, 차영화, 이건열, 김정수, 최태원, 김지훈, 곽현희

▲투수(7명) : 조태수, 정성철, 양동일, 김웅비, 이정훈, 한승엽, 박종모 ▲내야수(12명) : 김종국, 장성호, 이영수, 김형철, 손정훈, 권희석, 장태성, 유승룡, 이제우, 주도성, 송승민, 최병운 ▲야야수(6명) : 윤효섭, 유휘봉, 최현락, 임현용, 서동수, 이준호 ▲재활조(4명) : 흥세완, 한기주, 이명환, 김태훈

특히 강진베이스볼파크는 오는 2011년 말까지 호흡을 맞춘다.

류군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